

하이에크의 社會正義論에 對한 批判的 考察⁽¹⁾

金 完 鎭

본고는 하이에크의 社會的 定義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갖는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시장의 정보처리기능에 대한 하이에크의 탁월한 분석과 그러한 시장의 게임규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에 의한 지배와 자유지상주의적 도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의 사회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함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1. 序 論

자유와 평등은 근대사회의 두 기본가치로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이념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치사상사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발전하여 왔다. 현대 정치사상의 큰 흐름을 자유주의라 한다면, 평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平等主義的 자유주의와 自由地上主義的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롤즈(John Rawls)와 드워킨(Ronald Dworkin)을 들 수가 있고, 자유지상주의는 노직(Robert Nozick)과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현대사회에서 평등의 추구가 어떻게 자유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全體主義에 이르게 되는가를 뜨거운 열정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이러한 주장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의 출현에 의해 실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주의통제경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가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기능하고 번영하는 데 시장경제가 어떻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하이에크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은 현대 사상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하이에크는 인식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철학, 정치철학, 법학, 경제학에 걸친 종합적인 사상가로서 현대와 같이 전문화된 시대에 보가드문 종합적인 사상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본고는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한 분석과 그의 社會定義 개념에 대한 비판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간극을 찾아내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평등의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하이에크와 같이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평등주의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처음부터 자유와 평등의 이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롤즈의 이론은 시장경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사회정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의 정보처리기능과 발견적 과정으로서의 역할, 자생적 질서에 대한 분석과 같은 하이에크의 이론은 一般均衡理論, 進化的 게임이론, 社會選擇理論과 같은 현대적인 경제분석의 핵심내용을 비수학적인 용어로 기술한 선구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통찰과 직관은 현대 경제이론의 분석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게 전개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경제이론의 성과에 비추어 하이에크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이에크의 주장 중에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엄밀한 분석의 결여로 인해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발견적인 기능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독점이 있거나 외부성과 같은 시장의 실패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하이에크의 사상은 현재 경제분석을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에크의 사회정의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하이에크가 제기하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불가능성은 社會選擇理論에서 1973년에 발표된 기바드-새터스와의 不可能性定理(Gibbard-Satterthwaite Theorem)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매우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한 분배패턴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²⁾ 따라서 이 정리의 의미를 하이에크의 주장과 같이 자유와 평등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조건과 균형개념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평등을 실현하는 資源配分法則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구체적인 조건이나 엄밀한 개념정의에 따른 정밀한 이론적 분석 없이 모든 경우에 일반적인 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

(2) 자세한 내용은 Mas-Colell *et al.* (1995, p. 858)를 참조하시오.

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주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3장에서 우리는 하이에크의 사회적 정의 개념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그의 자유 개념 및 자생적과정으로서의 시장경제와 충돌을 일으키는가를 서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사회정의의 개념 분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회정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그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분배적 정의가 필요한 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시장경제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2. 自生的 秩序로서의 市場

하이에크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의 자급자족적인 사회와 巨大社會(Great Society)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사회의 조직과 운영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의 사회윤리나 도덕도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판단이다. 소규모사회는 문명 이전의 원시사회로서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face to face society) 상대방의 필요와 처지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회로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共通知識(common knowledge)이 된다.⁽³⁾ 이러한 소규모 사회에서는 자원배분을 위해 특별한 기구나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한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가 있으면 그것을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협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직내의 위계질서를 통한 명령이나 직접적인 의사전달이 협력을 가능케 한다. 생산물의 분배는 그 사회에서 전송된 도덕률과 또한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회가 직접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와 같은 원시적인 무리의 어떠한 구성원에게도 자연적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는 문명의 예술품이다. 그룹내에서 개개인은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어떠한 영역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룹지도자도 오직 인습적인 활동을 할

(3) 공통지식이란 구성원들이 그 지식을 알고 또한 상대방이 알고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그 사실을 또 알고 이러한 무한한 과정이 다 알려져 있을 때 그 정보를 공통지식이라 부른다. 하이에크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초의 경제학자라 할 수 있는데 정보의 획득과 처리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은 게임이론이 발전되면서부터이다. 공통지식의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Binmore(1990) 제4장을 참조하라.

때만이 자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 지지 및 이해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욕구에 대한 공동의 순위에 만족하게 되는 한 자유로운 개별 행동이란 불가능하다(Hayek(1978, p. 59)).

그런데 약 일만 년전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시가 출현하면서 마침내는 '巨大社會'가 성립되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거대사회는 규모면에서 크고 복잡할 뿐 아니라 바로 그 복잡성 때문에 운영방식에서 소그룹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진화를 통해서 성립된 거대사회의 운영방식이 바로 시장질서이다. 하이에크는 시장과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카타락틱스(Catallatics)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카타락시(Catallaxy)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교환하다, 거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또한 공동체에 받아들이다, 적을 친구로 전환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라고 하이에크는 설명한다(민경국 편역(1990, p. 174)). 카타락틱스라는 용어를 시장과정 대신에 하이에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카타락틱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규칙의 총체로서 어느 누구도 考案(design)해 낸 것이 아닌 自生的 秩序(spontaneous order)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카타락틱스는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메카니즘이다. 시장메카니즘은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로써 개인들이 따라야 하는 게임의 규칙을 포함한다. 시장과정의 기능에 대한 하이에크의 설명은 현대 미시경제이론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현대 미시경제이론이 보다 靜學的(static)인 측면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면 하이에크의 이론은 보다 動學的(dynamic)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에크의 이론이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이론이 점차 동학화되고 제도를 중시하며 진화론적인 관점을 수용함에 따라 하이에크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이에크의 시장의 情報處理에 관한 분석은 현대 이론의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거대사회가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정보의 수집과 처리인 것에 착안한다. 수천만 명으로 구성된 거대 분업사회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정보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에 대한 정보가 서로 전달되고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정보량은 천문학적이다. 이만한 양의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인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하이에크는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량을 지

구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모두 동원하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만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인간의 계산능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사실이 사회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하이에크 사회이론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⁴⁾

하이에크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회에 유용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과 같이 문자화하여 유통될 수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객관화하여 전달 할 수 없는,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도 포함하는데, 후자의 지식이야말로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후자와 같은 종류의 지식은 그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개개인에게 분산되어 있고, 그 모든 지식을 왜곡없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신고전과 경제이론은 이러한 주체를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최근의 경제이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의 情報經濟學 혹은 메카니즘 디자인 이론에서는 바로 하이에크가 지적하고 있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경우에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문제를 다룬다. 경제이론의 용어로는 이러한 정보의 분산을 情報의 非對稱性 (asymmetry of information)이라 부른다. 정보경제학과 制度 設計 (mechanism design) 이론의 출발점을 하이에크의 1930년대 논문 “經濟學과 情報”⁽⁵⁾에서 찾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장과정의 핵심은 각 경제주체에게 自律的인 의사결정권을 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시장의 조정기능은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표출과 유통을 기초로 한 것이다. 시장 가격은 이렇게 표출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어떤 재화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상승한다. 공급자는 가격의 상승을 보고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자신의 이익이 증가할 것을 안다. 즉, 가격은 수요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된다. 또한 어떤 생산활동이 과연 사회적인 분업체계 내에서 정합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가격체계가 제공한다. 예컨대 시장가격하에서 특정 생산활동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그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인데, 완전경쟁하에서 이윤을 내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활동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은 미시경제이론에서 엄밀하게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과정은 發見의 過程 (process of discovery)이 된다.

이러한 시장과정은 그 과정에 참가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경제적

(4) 복잡한 현상에 관한 이론이 하이에크 사회이론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민경국 편역(1990)의 제2장 “複雜한 社會의 理論”을 참조하라.

(5) Hayek (1948)의 제2장에 “Economics and Knowledge”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되어 있다.

번영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이 게임이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개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이 나타났던 이유는 개개인의 업적에 대한 보상은 어느 누구도 그 전체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들 개개인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은 어느 누군가의 견해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시 능력과 근면은 어느 누구든 각자의 기회들을 개선하여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 주도록 시장 가격들의 신호를 설정해 주었던 비인격적인 과정은 욕구나 주관적인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했다(민경국 편역(1990, p. 178)).”

시장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분배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은 그 분배결과를 결정하는 사회의 전체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정부를 포함해서) 유용한 정보의 일부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고 사회에 유용한 방향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이 게임의 성공의 요체가 된다.

시장게임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예컨대, 공적)에 비추어볼 때 어떤 개인은 너무 많이 갖게 되거나 또 적게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어떤 人爲的인 再分配行動에 의해 수정하려는 요구가 대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분배하고자 하는 그 총생산물의 양은 그러한 비인격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어떠한 형태이든지 평등 개념에 기초하여 재분배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3. 社會的 正義에 對한 하이에크의 見解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의 개념은 환상이나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주장은 대단히 강력한 비판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또한 매우 심각한 논리적 난점을 안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하이에크는 먼저 개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의의 개념은 모순된 것이라 주장한다. 정의 혹은 부정의는 어떤 개인의 의도된 행동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행동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不運(misfortune)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결과되는 분배문제는 어떤 개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개인의 의도되지 않은 행동의 복합적인 결과이므로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결과의 정의 혹은 부정의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

사회적 정의는 또한 분배적 정의의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경제에서는 무엇인가를 분배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도 내용 없는 개념이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개개인의 행동이 어떤 분배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들 행동 하나 하나를 살펴볼 때 그 어느 것도 결과되는 분배가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가 어떤 실체를 갖는 개념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하이에크는 원시시대에 획득된 생존본능이 隔世遺傳(atavism)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그룹사회는 단일의 목표와 수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명령체계에 의한 협동과 종족보존을 위한 분배규칙을 갖고 있어서 이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생존을 가능케 하는 분배규칙이 정의라는 관념이 발전했던 것이고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도덕적 관념에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인 분배규칙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개인의 행동규제는 거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거대사회의 게임규칙인 시장과정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관념이 된다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거대사회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공통의 행동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하이에크의 두번째 주장은 자유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하이에크는 積極的 자유와 消極的 자유를 구분하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능력의 개념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유는 타인의 의도적인 강제로부터의 자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라 한다. 타인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때 강제가 행해졌다고 하고, 내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강제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때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적극적인 자유, 즉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유의 전제조건

이 되는 그러한 자유의 개념 하에서 분배적 정의는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강제가 정당화되고 강제의不在로서의 자유가 침해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즉, 소극적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이에크에 의하면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분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정보의 유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증대인 것이다. 즉, 하이에크에게 있어서도 소극적 자유를 확보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 역시 자아실현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와 능력을 분리하게 되면 소극적인 자유가 요구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Plant(1994, pp. 171-173)).

사회적 정의 개념에 대한 하이에크의 세번째 비판은 사회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에 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 분배적 정의의 이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거의 모든 분배상태가 특정의 분배적 정의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에 대해 어떤 명확한 기준에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모든 분배적 정의의 주장은 공허한 웅변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道德的多元主義 사회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합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다양한 이익집단과 개인들이 그들이 믿는 주관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정의는 고귀한 이상이 아니라 정부의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집단의 경쟁을 糊塗하는 위장술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분배에 관여하는 정부는 강력한 이익집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Plant(1994, p. 167)).

하이에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설득력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에 합의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이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합당한 재분배를 행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필연적으로 효용의 측정과 개인간 비교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은 厚生經濟學과 사회선택이론의 연구성과로 확인된다. 그런데 효용의 측정과 개인간 비교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측정과 비교를 행하는 주체의 자의적인 판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개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4. 하이에크에 對한 反論

이제 하이에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자. 먼저 사회적 정의의 개념의 무의미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정의란 개인의 의도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연재해를 만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자. 하이에크의 주장과 같이 그 결과는 자연재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재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의와 부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처하는 제도적 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의와 부정을 말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개인의 행동에만 정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구조를 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의로운가 아닌가 물을 수 있다. 롤즈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는 사회제도가 갖추어야 할 첫번째 덕목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Rawls(1971, p. 3)). 롤즈는 사회를 분업체계 속에서 협력하는 개인들의 結社體(joint venture)로 이해했다. 이 결사체가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이익을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하는 공정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이 갖추어야 할 첫번째 덕목으로 정의를 꼽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정의는 바로 분배적 정의이며 또한 사회적 정의이다. 하이에크 자신도 롤즈의 정의론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롤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치제도의 의도적인 설계와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정의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롤즈교수는 최근에 매우 중요한 저작을 출판하였다.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롤즈교수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社會的 正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롤즈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미리 언급하기를 ‘특정 시스템이나 재화의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선택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시도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정의의 원리는, 관련 당사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제도나 집단행위가 충족해야 할 중요한 제약조건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이 충족된다면 결과되는 분배는, 그것이 어떠한지간에, 정의로운 것으로(적어도 부정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내

가 이 장에서 주장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Hayek(1976, p. 100)).”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배의 원칙으로서의 제도의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는 하이에크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사회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이 개념이 마치 사회라는 실체가 있어서 분배를 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관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는 대단히 통속적인 것이다. 우리가 시장경제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에크가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은 정곡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보다 실질적인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자. 단일의 분배적 정의의 개념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분배적 정부는 집단이익의 포로가 된다는 주장은 커다란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분배적 정부의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의 문제이다. 물론 합리적인 논변을 통해서 단일한 분배적 정의 개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는 유일한 올바른 삶의 원리를 찾고자 추구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삶의 원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양성을 포용하는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면, 하이에크가 추구하는 자유지상주의 원리도 다양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이에크의 이론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기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에크는 분배적 정의의 개념은 원시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질서에 기초한 거대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의 규칙은 自由主義的 道德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그 결과가 좋든 싫든 각 개인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 행동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 분배결과를 이리저리한 이유로 수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시장의 기능은 정지할 것이며 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재분배에 의해 모두가 같은 몫을 받게 되고 그것이 모두에게 예상된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총생산물은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떠돌고 있는 ‘사회적 정의’가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역행적인 효과는 개개인들이 계속투자를 위한 수단을 박탈당함으로써, 그들이 달성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개개인의 수준에 들어오고, 동시에 최소한 수단이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만 사용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된 문명사회에는 걸맞지 않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가난한 자들이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받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바로 불평등한 분배의 덕택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추상적인 행동규칙을 집행한 결과이고 또한 사회적 조정 방법인 특정의 목적을 물리친 추상적 행동규칙의 승리의 결과이다(Hayek(1978, p. 67)).

그러나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가격통제나 조세정책등의 방법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항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총생산물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하이에크는 독점이나 외부성의 존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의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비시장적인 자원배분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은 현대 경제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국방, 치안, 사법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공공재를 비롯해서, 환경문제나 국제경쟁력과 같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더욱 넓어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하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인 조건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조건이 수확체감 혹은 규모수익감소의 조건이다. 규모수익이 증가하는 기술 조건하에서는 경쟁시장에 의한 意思決定的 分權化(decentralization)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Mas-Colell *et al.*(1995, pp. 525-529)).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시장경제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이에크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시장적인 자원배분에 관해서도 하이에크는 단지 정부의 통제나 규제 혹은 조세정책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규칙의 도입을 통해서 시장이 할 수 없는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의 미시이론은 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의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분야 연구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비시장적인 자원배분을 도입할 때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비시장적 배분이 가져오는 소득분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인데, 그러한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이다.

외부성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경쟁시장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결과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때 조세의 도입과 같은 정부개입은 가격체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가격신호를 유발함으로써 총생산물을 감소시킨다는 사실도 잘 알려

져 있다. 하이에크는 어떤 정도이든지 모든 정부개입을 부정한다. 그러나 정부개입으로 인한 효율의 희생이 그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후생의 크기와 비교해서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정부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이에크의 반론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로 아무리 작은 규모의 정부개입이라도 그것이 일단 원칙으로서 허용된다면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으로 도미노현상을 보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적 자의적 개입이 보편화됨으로서 시장경제의 자원배분기능이 정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이에크가 우려한 바와 같이 1960년대까지 집산주의와 전체주의적 경향이 사상사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의 원리는 유일한 자원배분체도로써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에크의 우려는 더 이상 현실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하이에크의 사상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 처리와 전달 기구로서의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정착된다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가 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결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이에크의 두번째 반론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집행하는 데는 본질적으로恣意的(arbitrary)이고 裁定的(discretionary)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으로서의 법과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구분하고 전자를 *nomos*, 후자를 *thesis*로 불렀다. 하이에크는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의 *nomos*만이 진정한 법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고, *thesis*는 입법자가 의도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규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분배적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법은 *thesis*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하이에크는 보고 있다.

그런데 *nomos*와 *thesis*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협동해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기준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하이에크는 사기나 강탈의 방법 이외에는 어떻게 나누든지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고 간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한 합의를 규정하는 것이 *nomos*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준, 예컨대 반반씩 나누는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은 *thesis*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사기로 간주할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강탈이 될지에 대해 그렇게 간단히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체질의 소비자에게만 유해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 이것을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는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규칙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주관적이고 명백히 합의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후생경제학에서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사회적 가치판단은 효용의 측정과 개인간 비교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 nomos만으로 이루어진 법의 체계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분배적 정의는 현재 거대사회에서는 불필요한 도덕률이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을 정한 후에는 개인들의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자유주의적 도덕만이 거대사회에 적합한 도덕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규모의 익명사회라고 해서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성을 갖는 것이 불필요한 것인가? 또한 그러한 정서가 정부의 집합적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효율성을 어느 정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인류사회의 발전 수준이 그것을 용인할 정도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5. 結 論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소규모 자급자족경제와 대규모 분업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전혀 다른 운영규칙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동규칙과 도덕률도 달라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도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에크의 공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먼저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하이에크의 개념 분석은 옳지 않다. 사회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하이에크가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정의는 사회라는 주체가 재화와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자원의 배분을 규정하는 규칙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정의는 롤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제도의 첫번째 덕목이 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정치철학은 시장경제에 관한 매우 소박한 경제이론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이론의 연구성과에 비추어서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이 적지 않은데 특히 분배적 정의에 관한 그의 주장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후생경제학은 게임이론과 사회선택이론 그리고 제도 설계 이론의 발전에 힘입어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효율과 평등 그리고 나아가서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하이에크의 사회정의론은 이러한 경제이론의 조명 아래 다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8

팩시: (02)886-4231

E-mail: wjkim@prome.snu.ac.kr

參 考 文 獻

- 민경국 편역(1990):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 Arrow, K.(1963):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Yale University Press.
- _____(1983): *Collected Papers of K. Arrow: Social Choice and Justice*, Vol I, Harvard University Press.
- Birner, J., and R. Van Zijp(1994): *Hayek, Co-ordination and Evolution*, Routledge.
- Barry, B.(1989): *Theories of Justice*, Berkeley University Press.
- _____(1995): *Justice as Impar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Binmore, K.(1990):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Game Theory*, Basil Blackwell.
- _____(1992): *Game Theory and the Social Contract Volume I: Playing Fair*, MIT Press.
- _____(1998): *Game Theory and the Social Contract, Volume II: Just Playing*, MIT Press.
- Boadway, R., and N. Bruce(1984): *Welfare Economics*, Basil Blackwell.
- Buttler, E.(1983):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London, Temple Smith.
- Elster, J., and A. Hylland(1982):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uthier, D.(1986): *Morals by 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Gray, J.(1984): *Hayek on Liberty*, Basil Blackwell.
- _____(2000): *Two Faces of Liberalism*, The New Press.

- Groves, T., *et al.*(1987): *Information, Incentives, and Economic Mechanisms*, Basil Blackwell.
- Hausman, D., and M. McPherson(199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 von(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60):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University Press.
- Hurwicz, L. *et al.*(1985): *Social Goals and Social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lm, S.-Christophe(1996): *Modern Theories of Justice*, MIT Press.
- Kreps, D.(1990): *A Course in Microeconomic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s-Colell, A., *et al.*(1995): *Micro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 Phelps, E.(1973): *Economic Justice*, Penguin.
- Plant, R.(1994): "Hayek on Social Justice: A Critique," in J. Birner and R. Van Zijp(1994).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emer, J.(1994): *Egalitarian Perspectives: Essayes in Philosophic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wland, B.M.(1987): *Ordered Liberty and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Political Thought of Friedrich A. Hayek*, Greenwood Press.
- Sen, A.(1982):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MIT Press.
- Sugden, R.(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Choice*,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Economics of Rights, Co-operation and Welfare*, Basil Blackwell.
- Tomlinson, J.(1990): *Hayek and the Market*, Pluto Perspectives.